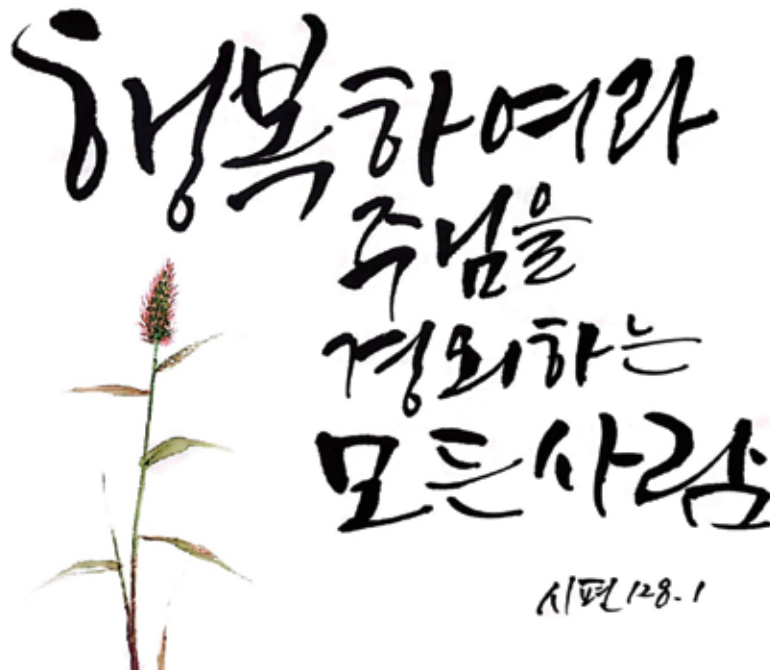




행복하여라 / 한금순 카타리나(당진본당)

표지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사진 설명 4면>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2024년 5월 5일(나해)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1요한 4,7-1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천안·아산 예비신학생 모임
5월 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쌍용동성당

대전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5월 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탄방동성당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박성민 요한금구
법동 주임

오늘 전례는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와 사랑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순히 이기심과 탐욕을 좇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심 없는 사랑도 있고, 또 전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내적이며 영성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잊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 그 특성에 따라 여러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오늘 둘째 독서와 복음에서 성 요한은 그리스도교 사랑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느님 안에서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원과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단순히 그냥, 혹은 내 기준으로 되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명이며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참된 봉사와 사랑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의 반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랑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배신당하지만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듯이, 신앙인들도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은 날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찬례가 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바울이
(1068)
유판식 토마스



세 번째 에피소드 홍산성당

오늘은 홍산성당의 남 카타리나 자매님, 양 요한 형제님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Q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사 전례와 성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양 요한 형제님 저는 세례를 조금 늦게 받은 편입니다. 원래 개신교에 다니다가 사촌 동생 신부님의 권유로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거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하느님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본당 관할 구역 내 은곡 공소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홍산본당과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나이가 많고 거리상 어려움 때문에 평일미사 참례는 어렵지만 주일미사는 본당으로 가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주일미사를 참례하러 가기 전의 준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세면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느님을 뵈러 간다는 생각에 제일 깔끔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단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남 카타리나 자매님 저는 개인적으로 꾸르실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꾸르실로 교육 이후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 순종, 사랑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교사회 활동을 통해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 이전에 먼저 제 자녀를 보는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같이 기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줄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맛을 들이고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신앙생활 중에서 사제, 수도자, 혹은 교우들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양 요한 형제님 많은 분이 코로나로 고생하셨지만 저도 코로나에 걸려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주임 신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음식과 위문품 등을 전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잊지 못할 순간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사제가 주는 위안이 신앙 생활의 기쁨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 카타리나 자매님 저는 수녀님께 따뜻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아 시택으로 귀농 결정을 하고 많은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녀님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신앙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보자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흔적이 지금까지 제가 지치거나 힘들 때 하느님께 의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늘 수녀님도 건강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노드사목연구소



79. 미사 해설 - 마침 예식(2) : 강복 (1)

마침 예식

140. 필요에 따라 사목 권고나 공지 사항을 짚막하게 한다.

강복

141. 그다음에 파견을 한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교우들을 향하여 말한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는 교우들에게 강복한다.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교우들은 응답한다.

◎ 아멘.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영육 간에 힘을 얻은 교우들은 미사의 마지막 부분인 마침 예식에 참여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아감, 파견은 마침 예식의 일부로서 “강복”과 “파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복에 앞서, 본당 소식이나 간단한 공지사항은 마침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게 되는데, 공지사항이 길어 미사의 은총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지사항의 길고 짧음의 판단보다는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소식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로써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어서 사제의 강복이 이어집니다. 교황과 주교님들은 오래 전부터 미사 끝에 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의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우들이 퇴장할 때 그들 위에 십자 성호를 그음으로써 강복을 주었는데, 이는 현재도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의 행렬에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교우들에게 강복을 줄 주교가 없을 때도 강복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사제들을 통해 강복을 주게 되었는데, 주교처럼 퇴장하는 동안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제대 위에서 하는 것으로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강복의 모습은 1604년에야 비로소 예식화되었습니다. 강복 안에서 삼위일체적 구조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교우들은 새로운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습니다. 강복을 받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평화로이 우리의 삶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강복의 특징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과 애정을 증명하는 표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복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1면 사진 설명

행복하여라 / 한금순 카타리나(당진본당)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흐름을 따라가기가 숨이 차서 ‘지금 난 행복한 건가?’란 생각조차 한가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난 늘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려 노력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도, 주님을 몰라 찾지 않는 다른 사람도 삶이 의미 있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잡초가 각자 살아가는 의미가 있듯이.....



워닝 트랙

텔레비전으로 프로 야구 중계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워닝 트랙’(Warning Track)이라는 야구 용어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타자의 공이 외야 펜스(담장) 근처에서 수비수에게 잡힐 때, 중계진에 의해 주로 “워닝 트랙 앞에서 잡혔다.”라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워닝 트랙’은 야구 경기장 외야 펜스를 따라 마치 육상트랙이나 산책길처럼 약 3미터의 폭으로 잔디 대신 흙을 깔아 만든 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런 흙길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있습니다. 야구 경기 중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외야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외야수는 타자가 친 공을 잡아야 합니다. 외야 펜스까지 공이 날아가면 그 공을 잡기 위해 허공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그때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야구 경기가 생겨나고 한참 성장하던 예전만 해도 외야 펜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외야수의 충돌은 매우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보호패드로 제작된 펜스를 사용하는 요즘에도 선수들의 충돌 부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상을 막기 위해서 선수들이 펜스를 향해 달려갈 때 펜스가 무척 가까워졌음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 경고 장치로 마련된 것이 ‘워닝 트랙’이었던 것입니다.

외야수는 잔디가 아니라 흙을 밟으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공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공을 잡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워닝 트랙’은 야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안에도 이쯤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워닝 트랙이 필요합니다.

승부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과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워닝 트랙’ 하나라도 고민하고 만들어 보는 날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성지를 걷다_정산성지(2)

2. 이도기 바오로의 삶과 믿음

‘청양다락골성지’에서 펴낸 ‘정산일기’에는 이도기 바오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도기 바오로는 1743년 청양 수단리(현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해를 피해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로 옮겨와 웅기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산은 물론 논산, 홍주, 공주 등지로 복음을 전하며, 교우들의 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수많은 교우들의 순교가 이어지던 1797년, 이웃의 고발로 6월 8일 체포되었다. 옥중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관리들이 벼슬과 음식으로 유혹하며 배교를 강요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정산 장날에는 치성장터에 끌려 나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고 등에 복을 지게한 후 관중들이 뒤에서 쫓아다니며 두들기고, 심지어 때리고 욕설을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였다. 1798년 음력 6월 10일에 장터에서 다시 배교하라는 강요와 가혹한 매질을 당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아배(아버지)’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옥으로 옮겨진 이도기 바오로는 이틀 후인 1798년 7월 24일(음 6월 12일) 온몸이 망가진 채 옥담 밖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향년 56세에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클·그림 정산성지

알립니다

교구알림

제158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

- 때·곳 : 5.9(목) 19:30, 봉산동성당
- 주제 : 대한민국의 법치 / 미사 후 특강
- 강사 : 문현웅 변호사(前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44)270-3072

본 당

공세리 성체거동

- 주제 : 성체성사는 기쁨입니다
- 때 : 6.1(토) 10:30
- 주례 : 교구장 김중수 주교
- 문의 : (041)533-8181, 010-7608-8182

제28회 프란치스코평화음악회

- 때·곳 : 5.18(토) 19:00, 목동성당
- 연주 : 디하모니 중창단
- 주최 : 평화음악후원회 / 전석무료초대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 모집 : 사무처 관리과 1명
- 전기시설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제반 업무
- 자격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접수 : 5.24(금)까지 / 우편 및 내방 접수
- www.dcatolic.ac.kr 및 교구 홈페이지 참고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무료 상담소 “에우”

- 심리상담, 심리성당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송봉모 신부의 1박2일 영성피정

- 주제 : 하느님 자비 앞에서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 때 : 6.22(토) 16:00~23(주일) 13:00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9만원
- 문의 : 010-8848-5690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 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평화방송 아도르페(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대상 : 만55세 이상 남녀 가톨릭신자
- 연습 : 매주 월요일 1부 10:30, 2부 19:30, 선화동성당 / 문의 : 010-7933-824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5.9(목) 15: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4116-0140

마리아 사제운동(MSM)체나콜로 월레미사

- 때 : 5.11(토) 10:00 월레미사, 체나콜로
- 곳 : 덕산순교성지(덕산면 봉운로 54-1)
- 문의 : 010-5184-8696

대전교구 음악 선교단 ‘더 위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보컬 / 소정의 오디션 있음
- 자격 : 20~40대 천주교 신자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제13차 포스트 푸르실로 참가자 모집

- 때·곳 : 5.18(토)~19(주일), 정하상 교육회관
- 참가비 : 10만원(1박 2일) / 남녀 혼성 60명
- 자격 : 푸르실로 교육 수료자로 주임신부와 올뜨레야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대전교구 체나콜로 피정

- 때·곳 : 6.8(토), 덕명동성당
- 강사 : 이병근 신부
- 미사 집전 : 총대리 한정현 주교
- 문의 : 010-5184-8696

대전교구 음악선교단 ‘작은평화’ 단원모집

- 대상 : 기타, 건반, 베이스, 남자보컬
- 자격 : 2~30대 천주교 신자/소정의 오디션 있음
- 문의 : 010-8922-5469, 010-2865-9273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나무조각(성화,성물) 회원모집-9기

- 때 : 월요일(오후, 밤) / 수요일(오후)
- 곳 : 거룩한말씀 수녀원 교육관(목동)
- 교육 : 한국가톨릭목공예 충청지회
- 문의 : 010-3253-9349

AuthenticMovement를 통한 진정한 내면의 소리듣기 동작치료 워크샵

- 몸-마음-영성의 통합과 치유
- 때 : 5.18(토) 14:30~17:3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문의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마음학교 집중과정

- 내면아이와 트라우마
- 때 : 5.13(월) 19:30~21:30, 10주간
- 진행방식 : 비대면, 줌으로 진행
- 문의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래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콩콩피정 성모님 마음 5.25(토) 10:00~16:00, 미사
- 캘리그래피과제전 전시회(5.18~21) 10:00~17:00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수도회 및 피정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열린 초대 피정’

- 성모 성월을 맞아 ‘열린 초대 피정’에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주제 : 우주적 형제애
- 때·곳 : 5.20(월) 10:00~15:00, 관구원 교육관
- 피정비 : 무료 (점심 제공)
- 신청·문의 : 최숙희 데레사 수녀 010-4322-154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수녀)

- 1박2일 : 5.25~26, 6.15~16
- 8박9일 : 6.23~7.1, 8.5~13
- 40일 : 6.20~7.29
- 곳 :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신청 : (031)321-9054, 010-4154-0885
- 예수마음선교수녀회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레미사

- 대상 : 협력자 회원 &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 때 : 매월 첫째주 화요일 10:30
- 곳 : 월평동성당
- 문의 : 010-3427-7816 (이베레나)

거룩한 말씀의 회 창립 60주년 미사

- 초대합니다
- 수도회 창립 60주년 기념 미사
- 때 : 5.20(월) 11:00 미사
- 곳 : 거룩한 말씀의 회 수녀원 성당
- 주례 : 김중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7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7/12 동부유럽 5개국 465만원
7/12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460만원
신청 및 문의 T. (02)2281-9070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외 9인 협진
T. (042)489-8888 유성운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라식, 라섹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포 강희권 울리오

현대 정형외과

- 척추, 관절, 통증, 재활 -
원장 : 이정구 (시몬)
T. (042)621-7585 동구 가양초 사거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5.10(금)~12(주일), 7.5(금)~7(주일)
- 성경완독 : 5.17(금)~25(토), 6.21(금)~29(토), 7.26(금)~8.3(토)
- 효소단식 : 5.30(목)~6.2(주일), 7.11(목)~14(주일)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 순교 복자성직 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 자연순례 : 5.27~29, 6.10~12, 6.22~24, 7.19~21, 8.21~23, 9.1~3
- 성지순례 : 6.3~6, 6.15~18, 9.7~10
- 우도해변포함 : 7.25~28, 8.2~5, 8.8~10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때 : 6.2(주일) 11:00
- 곳 : 서울 성북동 본원
- 대상 : 한반도에 머물길 아까운 그대
- 문의 : 010-8715-2846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심과 성지순례
-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자연순례 : 5.22~24, 6.21~23, 7.12~14, 9.2~4
-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 6.16~18, 7.1~3
- 우도해변포함 : 7.20~22, 7.25~28, 8.1~4, 8.6~8, 8.10~13, 8.24~26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과달루페집 성모신심 피정 / 대상 : 누구나

- 때 : 5.18(토) 09:30~16:30
- 주제 : 성모님의 학교에서
- 곳 :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 신청 : 010-6685-1417 (문자 접수)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 때 : 5.23~25(성모의밤), 6.19~21
- 곳 : 성 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 대상 : 개인, 단체 (본당 맞춤피정 환경)
-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외쳐라, 가정과 생명의 복음을!

2024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마태 23:39)

2024년 5월 24일(금) 14:30~20:30

1부 생명대행진 : 생명을 외쳐라
대전교구청-세종시청 / 오후 3시~4시

2부 미사 전 행사
대전교구청 성모당 / 오후 5시~6시 30분

3부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대전교구청 성모당 / 오후 7시

주최: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주관: 천주교대전교구 가정사목부
문의: 042)256-5487 <http://familia.djcatholic.or.kr>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대상
가정신앙강좌 : 우리들의 블루스	5.10(금) 19:00, 명례방	모든 신자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미사	5.15(수) 10: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5.16(목) 10:00, 전민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5.16(목) 19:30, 원신흥동성당	모든 신자
혼인교리	5.18(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문의 · 신청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 (02)852-8525

- 5.13(월)~24(금) 발칸 메주고리에(12일) 485만원 (대한항공)
- 5.18(토)~30(목) 유럽3대 성모발현지(13일) 550만원 (대한항공)
- 6.4(화)~13(목) 스페인 10일(빠라도르6박) 550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위의 일정 외에도 맞춤형 순례 가능〉

한국천주교회 첫 순교자 복자품 10주기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천주교대전교구 진산성지
순교자 현양대회

2024년 5월 25일(토) 08:30~12:30

1부 도보순례(장안동/장태산~진산성지)

08:30 장태산 주차장 집결, 시작기도 후 시작
10:20 진산성지 도착

2부 축일미사(장소 : 진산성지)

11:00 집전 : 총대리 한정현 주교 및 사제단
12:30 파견

문의 : (041)752-6249

* 순환버스운행(진산성지~장태산)

수도회명(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살레시오회	매월 두 번째 토~주일	대전 정림동 수도원	(042)583-3946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11(토) 14:00~12(주일) 13:00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010-8353-2323(문자 문의)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26.2°C

총 모금 262,736,289원

[4.13~19 모금액] 3,665,037원
본당 2,401,437원 / 개인·기관·행사 1,263,600원

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미카엘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05/13 일본 나가사키 4일 07/15 동유럽 11일 06/15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12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미카엘 여행사 T. 010-8650-9690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박상도(펠릭스)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제2차 본당 공동체 봉사자 학교



본당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목위원, 구역장(반장), 단체장을 위한 '제2차 본당 공동체 봉사자 학교'가 4월 13일(토) 총 15개 본당에서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명례방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일정은 '교회와 은총' 강의를 시작으로, '본당과 생태환경', '본당과 사회복지', '준성사와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파견 미사로 마무리되었다.

세종성바오로본당 신입복사 입단식



세종성바오로본당(주임 유탁준 신부)은 4월 14일(주일) 10명의 신입복사 입단식을 했다. 복사단원으로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하며, 신자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온양신정동본당 남방제성지 도보순례



온양신정동본당(주임 이의철 신부)은 4월 13일(토) 순교신심미사에 앞서 남방제성지 도보순례를 했다.

본당과 남방제성지 약 4.5km의 순례길을 걸으며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청하며, 저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민동본당 자비의 모후 꾸리아 야외행사



전민동본당(주임 변윤철 신부) 자비의 모후 꾸리아 소속 브레시디움 레지오 단원들은 4월 12일(금) 야외 행사를 다녀왔다.

1918년 대구대교구성모당과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 이윤일 요한 성인의 유해와 참수 순교자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관덕정을 순례하는 여정이었다.

세종성요한본당 나가사키 성지순례



세종성요한본당(주임 강길원 신부)은 4월 7일(주일)부터 10일(수)까지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하늘 나라 여권 만들기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헤어 봉사자 모집



자세한 사항은
홍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홍보국 (044)270-3041~2,
tjubo@hanmail.net